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와 형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바람: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토대*

정계숙** 전주연***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about the Realities and Formations
of Partnership between the Hom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of Parents and Teachers: Foundation of Warm Educational
Communities

Chung, Kai Sook Kyun, Ju Youn

본 연구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 교육기관의 비생명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터하여 부모와 교사의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와 형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현재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4명과 현직 교사 4명, 총 8명이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파트너십 실태에 대한 인식은 4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1) '파트너십': 아이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2) 모호함을 안은 채 수행하고 있는 서툰 파트너십, 3) 진정한 협력자·동반자로서의 자각 부족, 4) 부모-교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외적 문제가 그것이다. 둘째,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바람은 5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1) 더 나은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체의식 형성, 2) 부모-교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 개발, 3) 다양한 부모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증진 방안 고려, 4) 지역사회의 대학과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활성화, 5) 가정-교육기관 간 새로운 관계문화 형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및 현장 적용의 노력으로 구축되는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탄탄한 파트너십은 유아교육기관을 생명성이 보지(保持)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구현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부모(가정), 교사(교육기관), 파트너십, 교육공동체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2014S1A3A2044390), 2014년도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포스터발표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제 1저자: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E-mail: juyoun1209@hanmail.net)

I. 서론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 내 학교는 경쟁심, 서열화, 부모-교사, 학생-교사 간 갈등과 불신, 학교 내 또래폭력 및 왕따와 같은 현상이 노정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피교육자들의 높은 불행감과 심리적 어려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실망감과 불신 등을 야기시켰다.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적 경쟁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거나 더 심화되면서 교육현장은 생명성을 잃어가고 있어 아이들은 점점 거칠고 메말라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공교육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건강하고 민주적인 시민 양성이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교육현장을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교육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주로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작된 학교공동체 또는 교육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보여준다. 안경식(2007)은 우리나라의 학교공동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허학도(2005)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각각의 주요역할에 대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양병찬(2008)은 농업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 과정을, 조용환, 서근원(2004)은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육공동체 형성 사례를 구체적으로 그려낸 바 있으며, 우소연(2003)은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 주체로서의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양병찬, 2008; 우소연, 2003; 정숙녀, 1998; 조용환, 서근원, 2004; 최인섭, 2014), 상의하달 방식 또는 교사 중심의 강제된 공동체 활동으로 공동체의 생명인 구성원 간 자발적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서경혜, 2009).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부모, 교사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정립과 함께, 삼자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어 자발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학교가 진정한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학교는 하나의 생명체(한승희, 2006)로서 장희익(2014)의 개념을 빌리면 주요 날생명인 학생, 교사, 부모가 보생명을 바탕으로 상호적 의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온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육현장 건설의 욕구와 지원에 터하여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자발적 협력으로 생명성이 살아있는 교육공동체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주 대상이자 주체인 유아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부모-교사 간의 건강한 상호의존성 또는 파트너십을 강조해옴으로써(Epstein, 1995, 2001)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유아교육기관을 교육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부모(가정)-교사(기관) 간 협력에 근간을 두고 있는 공동육아는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하며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생활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 형성의 한 모델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해 이웃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그린 류경희, 김순옥(2001),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공동육아교사들이 연구자로서의 실천적 경험을 드러내거나(이부미, 2010)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하루일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밝힌 이부미(2011),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의 경험과 변화 과정을 그린 조윤경(2011), 공동육아를 시작한 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힌 하

영운(2008) 등과 같은 현장 중심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부모와 교사가 대화와 성찰의 매개체로서 기록 작업(documentation)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자세히 그려낸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2005)의 연구는 부모와 교사가 서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학습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실천사례를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Berns(2010, 2013)는 아이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부모,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 및 실천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Epstein(1995, 2001, 2002), Epstein과 Sheldon(2006)은 보다 나은 교육기관-부모-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형성, 유지에 관한 이론 및 성공적인 파트너십 방안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Bryan과 Henry(2012)는 교육기관-부모-지역사회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그 원리와 과정을 자세히 그려내었으며, Carol(2002)은 교사들이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잘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Fitzgerald(2004)는 유아교사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파트너십 전략을 소개하였고, Hedges와 Lee(2010)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유아의 가족들과 파트너십을 잘 유지, 형성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사고(의식), 기술, 태도 등의 준비에 대해 기술한 바 있으며, Margaret과 Peter(2005)는 교사가 부모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Michael(2011)은 보다 나은 가정과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의 지식과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들의 지식 및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혔으며, Susan, James, DeLacy와 Anita(2011)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한 대학원 수업을 들은 교사들이 수업이 끝난 후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혔고, 교사교육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이러한 수업 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모두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부모-교사 간 협력이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촉진하며(Cox, 2005; Epstein, 2001),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Keyser, 2006) 반면, 이 두 환경 체계가 서로 분리되고 이질적이며 배타적일 때 아이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계숙, 2011). 또한 기관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간의 긍정적인 협력은 부모들에게는 교사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고 부모의 의사가 기관의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되어 유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Lopez, Scribner, & Mahitivanichcha, 2001)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사들은 가족의 다양한 구조와 배경, 생활습관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적절한 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자신에 대한 유아들의 신뢰가 증가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Keyser, 2006). 이처럼 부모(가정)와 교사(교육기관) 간의 협력은 유아, 부모 및 교사 모두에게 더 나은 발달, 만족감과 효능감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형성의 핵심 요건인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따뜻한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증진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Keyser(2006)에 따르면, 가정과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또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는 관계 형성의 양 주체인 부모와 교사가 파트너십의 의미와 실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들 간 상호 공유된 인식은 유아의 교육과 지도를 비롯한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소통 기회를 확장시키고 상호 소통을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부모와 교사 간 상호 인식 및 전문성 이해와 존중,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 교환, 서로의 다양성 이해와 존중, 상호 간 사회적 지원망 형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Delgado-Gaitan(2007), Epstein과 Sanders(2006), Epstein, Sanders, Simon, Salina, Jansorn과 Van Voorhis(2009)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교육기관, 가족,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이해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이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성인들 사이의 존중, 감사, 신뢰,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오래 전부터 부모-교사-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주장한 Epstein(2001, 2002)에 따르면, 예비교사교육과 관련된 모든 준비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하나의 강좌가 교육기관, 가족과 지역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져 핵심교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Delpit(2006)는 교육기관, 가족,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좌는 예비교사, 특히 도시에서 일하려는 예비교사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강미(2002)는 현직 교사들을 위한 교사 연수나 부모참여 활동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 유아교육의 현실은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에 협력을 토대로 한 건강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기보다 부모는 교사나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사 또한 부모를 다소 부담스럽고 버거운 존재로 생각하며 유아교사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진(burn out)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유아교육현장의 사회적 사건은 교사와 기관에 대한 부모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교사들 또한 많은 심리적 상처와 자존감 손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파트너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교육 현상은 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에서 기인되는 부분도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교육 주체들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부모의 지나친 요구, 교사의 교육적 신념과 부모의 요구 및 기대 간의 갈등(박향아, 제경숙, 2003; 안지혜, 2012), 부모들의 교사(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김운숙, 조희숙, 2011; 배율미, 조유진, 2014)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정계숙, 2011)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경우 경력, 학력, 자녀양육경험 및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손환희, 정계숙, 2011; 이효영, 문혁준, 2013), 부모와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식(정계숙, 2011), 부모와 평등하지 않은 관계(안지혜, 2012) 등이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교사 파트너십에 관한 관점을 분석한 김현진, 송하나(2012)의 연구,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간의 신뢰 형성의 어려움 및 협력 증진의 노력 과정을 밝힌 최서영(2014)의 연구는 한국사회 내 유아교육 분야에 있어서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큰 난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적

과제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부모-교사 간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은 주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제와 그 원인, 즉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 부모의 양육관과 교사의 교육관 간 충돌, 상호 간 과잉 해석(노상경, 2012), 교사의 대인간 의사소통 수준과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손환희, 정계숙, 2011),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효영, 문혁준, 2013), 시간적 여유 부족과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태도(홍정연, 2011)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 나아가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실천 방안을 직접 다루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미래 교육기관이 더욱 건강하고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건강하면서도 강력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미시체계 환경인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의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교육현장의 요구와 문제에 맞는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명적 주체로서 심신이 건강한 유아를 기르기 위해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협력관계의 주체인 부모와 교사의 파트너십 이행 실태와 그 형성에 대한 인식과 바람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사회에 팽배한 여러 가지 부정적 교육현상을 극복하고 교육주체들 간에 생명성이 살아있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나가는 데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 및 그 형성에 대한 바람에 관해 부모와 교사의 실제적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모(가정)-교사(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은 토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 및 그 형성을 위한 바람에 관해 부모와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을 모색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4명과 매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유아교사 4명, 총 8명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직업	연령	자녀수	자녀 재원 교육기관
A 어머니	주부 (결혼 7년차)	만 35세	2명(만5세, 만3세)	유아교육기관
B 어머니	주부 (결혼 8년차)	만 40세	2명(만5세, 만3세)	유아교육기관

C 어머니	주부 (결혼 7년차)	만 35세	2명(만4세, 만3세)	유아교육기관
D 어머니	은행원 (결혼 10년차)	만 42세	2명(만8세, 만5세)	초등학교/ 유아교육기관
A 교사	유치원 교사 (근무 5년차)	만 29세	미혼	
B 교사	유치원 교사 (근무 8년차)	만 36세	1명(만4세)	유아교육기관
C 교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 7년차)	만 31세	미혼	
D 교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 9년차)	만 37세	2명(만5세, 만2세)	유아교육기관

한편 면담 당시 어머니와 교사의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에 대한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A 어머니, B 어머니, C 어머니는 평소 교사-부모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되도록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B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역 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D 어머니의 경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직장인인 관계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A 교사 ~ D 교사는 모두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명확히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관련 행사 준비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또한 면담 당시 A 교사와 B 교사가 재직하는 유치원에서는 월 1회 정도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C 교사와 D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와 현직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이들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2014년 4월 28일 ~ 5월 14일 사이에 A, B 어머니와 A 교사의 동의를 구한 후 각각 2회 면담하였으며, 2014년 12월 5일 ~ 12월 27일 사이에 C, D 어머니와 B, C, D 교사의 동의를 구한 후 각각 2회 면담하였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어머니와 교사가 승낙한 저녁시간에 1차례씩 전화통화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인당 면담에 걸린 총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 3시간 30분 정도였으며, 전화통화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의 시기가 각각 4 ~ 5월, 12월로 선정된 이유는 우선 A와 B 어머니, A 교사를 면담한 후 보다 풍부한 자료 획득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인 C, D 어머니와 B, C, D 교사와 연구자들 간의 시간 조율로 인해 다소 긴 시간차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머니 및 교사와의 면담 내용은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함께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생각하는 파트너십의 정의(개념),

교사의 경우 현재 자신의 부모 간 파트너십 유지 정도(부모의 경우 현재 자신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의 파트너십 유지 정도),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현재 자신(교육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와 지금까지의 간략한 과정, 파트너십 관련 어려움, 생각나는(또는 기대하는) 활성화 방안, 앞으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바람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필요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추가 질문도 이루어졌다.

한편 면담 자료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에 거쳐 분석(Miles & Huberman, 1994)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자료의 개방 코딩(open coding) 단계로, 이는 전사된 자료들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연구에 관련된 주제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대표적인 용어로 명칭하고, 그 용어별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둘째는 코딩과정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출된 용어들 중에 서로 연관이 있거나 연결되는 용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코딩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그 자료들이 내포하는 함축된 의미나 특징, 패턴을 찾아보는 과정 등을 거쳤다. 셋째는 주제 확정의 단계로 찾아낸 주제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자료로부터 찾아보고 또한 이 주제에 반하는 자료는 없는지 다시 확인한 후, 최종 주제를 확정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 간의 토론 및 반복적 자료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로 연구결과 및 해석 검토 과정에 연구참여자인 어머니들과 교사들의 검토를 받았으며,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과정으로 유아교육 전문가이자 질적 연구 경험자 2인에게 연구 방법, 분석 및 해석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자료분석에 근거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범주와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 및 형성의 바람에 대한 범주와 주제

핵심어구	범주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잘 발달하기 위해 부모-교사 간 협력이 필요함 • 부모와 교사는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사람임 •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가정과 유치원의 공동된 목표임 •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아이의 긍정적 성장에 꼭 필요한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음 • ‘(자신이 수행한 실제 예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파트너십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되물음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자그마한 것들 같음.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매우 크고 거창한 의미로 느껴짐 	개념이 다소 모호한 파트너십	부모와 교사가 느끼는 파트너십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자라는 생각 자체가 부족한 것 같음 • 서로의 요구를 바라기만 할 경우가 많음 •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소 부족한 것 같음 	협력자, 동반자 자각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쁜 일정과 과잉 업무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 	부모-교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교육행사)의 주제 또는 참여자의 반복됨으로 인한 식상함(참신성 부족) • (부모 입장) 교사로부터의 연락 부족 및 통화 시 단편적 질문과 대답 또는 이야기 나눔 	<p>협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키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이를 믿어야 함 • 서로 이해·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의식이 필요함 	<p>공동체의식 형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공감을 잘 해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음 •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의사소통기술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음(부모, 교사 모두 의사소통기술 증진의 필요) 	<p>공감능력과 의사소통기술 개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인 어머니와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의 요구 방식과 요구 정도가 다소 다름 • 부모마다 협력하고 소통해나가는 데 있어서 원하는 방식과 유형이 다름 	<p>다양한 부모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증진 방안 필요</p>	<p>더 나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을 받은 실제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행사가 자주 열리길 기대함 • 교사연수, 워크숍 등 교사교육을 위한 대학 내 행사가 꾸준히 열리길 바람 • 직접 참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교사교육이 수시로 열리길 바람 	<p>대학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또는 교사)교육의 활성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람 • 국가(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 같음 • 특정 교육기관(교사)이나 부모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함 	<p>다양한 국가(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p>	

Ⅲ. 연구결과

부모와 교사의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 및 그 형성에 대한 바람과 관련한 실제적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교사의 파트너십 실태에 대한 인식은 ‘파트너십’ : 아이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모호함을 안은 채 수행하고 있는 서툰 파트너십, 진정한 협력자·동반자로서의 자각 부족, 부모-교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외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부모와 교사의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바람은 더 나은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형성, 부모-교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 개발, 다양한 부모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증진 방안 고려, 지역사회와 대학과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활성화, 가정-교육기관 간 새로운 관계문화 형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도출되었다.

1. 부모와 교사의 파트너십 실태에 대한 인식

1) ‘파트너십’ : 아이의 긍정적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며, 아이들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박화윤, 2002; 윤기영, 1997; 이원영, 배소연, 2000) 이들 간의 동반자적 관계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 또한 부모와 교사 간의 파트너십은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성장, 발달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각각 보내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만 원에서는 선생님이 주로 돌보다보니 아이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도 저와 선생님의 협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4월 29일, A 어머니 1차면담)

저는 유치원 교사이면서 또 한 아이의 엄마다보니 교사와 엄마 역할을 모두 하고 있잖아요. - 중략 - 유치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선생님과 엄마,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게 가정과 유치원이고, 또 아이를 잘 키우는 게 가정과 유치원의 공통된 목적이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더 협력을 해야죠.

(12월 13일, B 교사 1차면담)

A 어머니와 B 교사 모두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정)과 교사(교육기관)의 공통된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합의 및 이에 토대한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2) 모호함을 안은 채 수행하고 있는 서툰 파트너십

부모와 교사 모두 상호 간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몇 가지 방법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 방안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모호함이나 미심쩍음, 자신감 부족 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들이 계신 직장에 현장체험도 나가고, 어머님들과 함께 생태학습장 같은 곳에 체험학습도 나가고, 과제는 아니지만 A4 1장정도 되는 크기에 가족과 함께한 사진이나 글을 적어 아이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파트너십이 될 수 있죠?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많은데요, 배운 적이 많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12월 19일, C 교사 1차면담)

어머니들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도 제공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문제도 함께 해결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적 관계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고, 어디까지를 협력이라고 하는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운 기억도 별로 없구요. 많이 부족하죠...

(4월 30일, A 교사 1차면담)

저희 아이는 1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1명은 유치원에 다니거든요. - 중략 - 이곳은 저처럼 주부인 엄마들에게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수시로 원 행사에 부르고, 현장체험 같은 곳도 따라가고, 또 그림책도 아이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한 권 정도요. 선생님이 읽어주고 하나봐요. 그런데 이런 게 협력 맞나요? 너무 자그마한 것들 같아서... 협력하면 뭔가 크고 거창한 지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4월 29일, A 어머니 1차면담)

협력관계에 있어서 갖게 되는 부모와 교사의 의아함과 궁금증은 아마도 C 교사의 발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교사의 경우 예비유아교사 시절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을 다루는 교과가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에 한정되었다는 것과 주로 개념적 이해에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기인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유아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며, 초등교육 이상의 경우 학교 급별 특성상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 국한하여 살펴볼 때, 부모-교사 파트너십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김현진, 송하나, 2012; 정계숙, 2011), 관련된 연구로도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노상경, 2012; 손환희, 정계숙, 2011; 안지혜, 2012; 최미숙, 박영미, 2004), 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 요구 및 인식(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 2011; 서영희, 권미량, 김은주, 2006) 등을 알아본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현장성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현장실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진정한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자각 부족

오래 전부터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동반자로서의 부모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가정-유아교육기관의 협력에 대한 주장이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위치(status)가 동등해야 하나, 이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않았다.

동등한 상황과 위치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묻는 듯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원의 방침대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구요 - 중략 - 때로는 ‘이야기를 잘 못 꺼냈다가 우리 아이에게 불똥이 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그럴 때는 협력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보이지 않는 끈이 떨어진 것 같은, 분리되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 중략 - 선생님과 엄마가 진짜 협력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5월 2일, B 어머니 1차면담)

어머니들이 저희 같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어머니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역지사지로 생각도 해보고, 많이 터놓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12월 19일, C 교사 1차면담)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와 부모, 어린이집과 가정이 진짜 협력해야한다는 생각과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그렇게 안하는데 겉으로 행동만 한다거나 말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겠지만,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12월 5일, D 교사 1차면담)

어머니와 교사는 모두 이들 간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 우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고와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미묘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부모와 교사 모두 상호 이해 및 존중을 통한 진정한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자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사나 기관에 대한 부모의 불신과 부정적 시각, 자신의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어머니의 마음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념적 차원의 사고와 실제 간에 다소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Souto-Manning과 Swick(2006)은 성공적인 파트너십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이해라고 하였으며, 이는 부모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 부모-교사 간 상호이해 및 존중은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협력자, 동반자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4) 부모-교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외적 문제

부모-교사, 가정-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소가 있다. 이 중 필수적인 부분이 시간적 여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만남의 장(場), 부모와 교사의 열의와 열정, 협력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이러한 바쁜 일상이 때로는 부모-교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가 정말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아이들 집에 보내면 엄청난 공문이 기다리고 있고, 사소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 중략 - 시간이 잘 안 나다보니 협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4월 30일, A 교사 1차면담)

가정과 유치원과의 협력이 중요하니까 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가보면 처음 한 두 번은 좋지만 대체로 참석 인원이 적은 편이고, 또 자주 가다보면 늘 오는 엄마들만 오다보니 식상해지더라고요. - 중략 - 바쁘다보면 또 띄엄띄엄 참석하게 되고... - 중략 - 우선 선생님과 연락이라도 잘 되면 좋겠어요.

(5월 2일, B 어머니 1차면담)

바쁘고 업무가 많은 것도 알기는 하지만, 최소 1달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이 연락을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자꾸 하자니 눈치도 보이고... 어쩔 때는 1달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올 때가 있어요. - 중략 - 다치거나 아플 때 연락하는 게 많고, 아니면 행사할 때 연락하고 보통 그러거든요. - 중략 - 엄마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아이들의 하루하루 소소한 생활이나 아이들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나... 뭐 이런 거거든요.

(12월 26일, C 어머니 2차면담)

특히 B와 C 어머니의 경우,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교사와 나누고 싶으나 교사가 바쁜 하루 일과로 인해 잦은 연락에 대한 귀찮음, 싫증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연락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내심 잦은 의사소통을 바라기도 하였다. 또한 어렵사리 연결된 교사와의 대화 통로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사 간에 실제 오가는 대화는 부모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양육방법이나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토대한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방향 설정, 가치관 형성 등 본질적인 협력의 내용보다는 주로 형식적인 대화의 오고감이나 특별한 행사 안내 등에 초점을 두다보니 진정한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에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유아교사라는 직업 및 역할에 대한 부모,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전자매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문제도 방해요인 중 하나임이 드러났다. 먼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교사에 비해 유아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사회 내 하나의 현상일 것이며, 이는 다음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 명백해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이 저희(유아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면서, 어쩔 때 보면 저희를 어머니들과 동등한 사람, 선생님이라는 대우를 하는 것보다 자신보다 어리고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12월 19일, C 교사 1차면담)

유치원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아직은 초등 이상의 선생님과과는 달라서인지 어머니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기보다 하대하듯이 보는 그 미묘한 시선이 느껴져요. 그럴 때는 저희도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이럴려고 교사됐나 싶기도 하구요.

(12월 27일, B 교사 2차면담)

또한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매체의 활용 수준은 때때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과 같은 전자, 통신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아교사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고, 이를 바라

보는 부모의 곱지 않은 시선이 교사들로 하여금 부모를 평가자, 감시자로 느끼게 하여 이들 간 협력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톡이나 카스 등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머니들이 제 사생활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픈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쩔땐 제가 누구랑 연애하는지, 주말에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등이 모두 노출되니까 때로는 싫더라고요.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때로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뭔가 미묘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깐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12월 19일, C 교사 1차면담)

정성수, 홍창남, 박상완, 이쌍철(2010)은 교장이 학교경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내 신뢰 구축 및 증진이며, 교장의 신뢰 증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교사의 사생활 고려 및 배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교장과 교사 사이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와 교사도 바람직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인식과 더불어, 일정 부분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긍정적 고려와 배려 및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종합해보면, 부모-교사 간 진정한 협력을 방해하는 외부 요소는 크게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기회 및 시간 부족, 대화의 본질을 흐리는 형식적 대화 내용, 존중과 존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의 유아교사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의 팽배, 전자매체 발달로 인한 교사의 사생활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교사 상호간의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에 기초한 부모-교사 간의 진정한 협력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2.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바람

1) 더 나은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체의식 형성

진정한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모두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 자기 자신이 그 집단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에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McMillan & Chavis, 1986),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 친밀감, 상호 이해와 존중, 동질감, 돌봄과 배려의식, 헌신과 참여의식, 연대의식과 같은 심리적 상태(한대동, 오경희, 2013)를 의미하는 공동체의식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교사도 대부분 개개인이 이와 같은 공동체의식을 가지며 이를 토대한 파트너십 증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생각엔 저희들과 부모님들이 더 잘 지내고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구요,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서로의 생각에 잘 동조하고 참여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12월 27일, B 교사 2차면담)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 중략 -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같이 키워나간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또 믿어야죠.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하다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 중략 - 그런데 이런 게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각자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12월 5일, D 교사 1차면담)

B교사와 D교사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보다 나은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부모와 교사의 진정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바라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의식 전환에 있어서 토대가 되며, 다양한 지원 방안의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교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 개발

부모와 교사는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올바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긍정적 관계 유지에 애쓰며,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불신과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러한 불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현실에 놓인 부모의 입장과, 다소 예민하고 자기 자녀 중심인 부모의 요구와 오해 및 부모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마음고생을 하는 교사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때로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상호 신뢰감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부모-교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의 증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면담 내용에서 부모나 교사가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선생님과 저희 같은 부모들은 아이를 중심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보니 서로 말을 함에 있어서 전달하는 기술이나 공감해주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 중략 - 아무리 큰 문제도 서로 공감 잘 해 주고 말이 잘 전달되고 하면 오해 없이 잘 풀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도 더 커져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걸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12월 21일, D 어머니 1차면담)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말을 전달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 서로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 각자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협력도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12월 27일, B 교사 2차면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교사가 타인 이해의 바탕이 되는 공감능력(나석희, 이현진, 2012)이나 의사소통능력(손환희, 2009; 정계숙, 2011)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부모들의 신뢰와 인정, 존중을 받기 위해 부모를 향한 마음 읽기, 배려, 공감능력 증진 및 아이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모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한국인은 명시적 의사표현보다 통합적, 심정적 커뮤니케이션에 더 익숙하기에(최상진, 2011) 구체적인 의사표현 기술이 부족할 수 있으며, 교사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배인자, 위수경, 2004; 이진애, 2012). 이에 교사와 부모의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돕는 개인과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의 향상은 보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부모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증진 방안 고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고와 성격을 지니고 있듯이, 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 또한 제각기 다양한 사고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참여를 향상 및 동기 유발을 위해 부모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의 운영이 효율적임이 강조되는 것처럼(김희진, 2014), 가정-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기관)가 부모의 기본 인적사항이나 성향 등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특히 어머니가 전업주부인지, 직장인인지, 잦은 연락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아이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지,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지 등 그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력이 대졸이상이거나 취업 중인 어머니가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이메일, 핸드폰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길 원하였던 연구결과(이지훈, 2013)도 어머니의 특징에 따라 파트너십 형성의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학부모의 유형에 따라 소통 방법을 달리 해야 학부모와 교직원 관계가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최서영(2014)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며, 다음의 C와 D 어머니의 발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저는 아이들 선생님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이라도 연락이 자주 오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소소한 것을 잘 알고 싶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주부라서 그런지 모든 신경이 아이한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애들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수업 시 태도는 어땠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등등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기대만큼 연락이 잘 오질 않으니 걱정도 되고, 섭섭할 때도 많고 그래요.

(12월 26일, C 어머니 2차면담)

제가 은행을 다니고 있다보니 생각보다 늦게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집에 가서 또 남은 일을

하고 애들도 씻기고 하다보면 매일 매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이 연락해오는 것이 어떨 때는 부담될 때도 있어요. 특히 둘째 아이 유치원 선생님은 사소한 것에도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물론 감사하지만 어쩔 때는 조금 귀찮을 때도 있더라구요.

(12월 21일, D 어머니 1차면담)

4) 지역사회의 대학과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활성화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 형성 방안에는 부모(가정)와 교사(교육기관)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나, 생태학적 측면에 근거한 체계 내 요인들의 상호 영향을 살펴볼 때 부모와 교사, 가정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대학이라는 상위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대학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는 특정 사람들에 한해 교육을 실시했던 장소였다면, 현 시대의 대학은 아이-부모-대학생(예비교사)-교사 등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인 다채로운 만남의 장(場)이 되었으며, Open Lab, 평생교육원, 멘토링 강좌 등의 이름을 내걸고 아이-부모-교사와의 만남을 직접 주관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실생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대학의 주요 기능이기도 하다(이수정, 심현기, 2009; 조동섭, 2005). 본 연구참여자들인 부모와 교사도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 대학에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가끔 연수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대학에서 저희 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서 파트너십을 잘 형성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소개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5일, D 교사 1차면담)

예전에 OO대학교에서 하는 워크샵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저희 같은 엄마들 모아놓고 대학교에서 행사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문화센터나 지원센터 같은데서 하는 것보다 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솔직히 믿음이 더 가긴 하거든요.

(12월 26일, C 어머니 2차면담)

언급된 이야기를 토대해 볼 때 부모와 교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대학과 교수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2015)은 대학 내 교수진과 연구진들이 지역사회의 유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 증진 효과성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지역사회 내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만남의 장(場), 배움의 장(場)을 만들어주고, 부모들은 참여한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통해 부모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또 다른 부모(가정)와 교육현장을 중재하고 연결하며,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됨으로써,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지역사회 지원(outreach) 연구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모 프로젝트(UCLA Parent Project)를 들 수 있는데, 저소득층 부모들은 대학에서 13주 동안 워크샵 형태의 자녀교육 관련

교육을 받고 지도자와 함께 교육현장을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현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가 높아졌고,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파트너가 되어 교육기관의 변화에 참여하는 이상의 행동(actions)을 주체적으로 실천하여 변화의 리더로 역할하게 되었다고 한다(Johnson, 2012).

한편, 어머니와 교사는 대학과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길 바라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깐 좋은 정보 같은 것을 컴퓨터상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십 관련한 내용들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온라인상에서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월 2일, B 어머니 1차면담)

어머니와 교사는 모두 앞으로의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대학의 노력 및 온라인상의 실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시의적절한 실천 방안 개발 및 적용에 긍정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가정-교육기관 간 새로운 관계문화 형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부모와 교사는 가정과 교육기관이라는 더 큰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하나의 도전과제를 잘 이루어내기 위해 각 개인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분위기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생태학적 모델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가정과 교육기관은 거대한 국가(정부)라는 큰 체계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지금껏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협력관계를 위한 노력은 교육현장 당사자의 책임이자 역할로 떠맡겨진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들과 저희 선생님들의 협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만 협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나 저희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다양한 행사도 열고 해서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하면 좋잖아요.

(12월 5일, D 교사 1차면담)

D 교사의 발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교사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우선 기관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북돋워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교사, 가정-교육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 협력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체계인 국가 차원에서 유아교육기관-가정 간 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상벌하는 방식보다, 신뢰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사, 부모,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이해 및 존중과 이를 통한 교육

공동체 구현을 북돋우는 사회적, 국가적 수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 교육기관의 비생명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터하여, 부모와 교사의 가정-유아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실태 및 그 형성을 위한 바람을 알아봄으로써 종국적으로 교육기관을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부모와 교사들은 모두 아이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요인으로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상호 신뢰와 믿음,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상호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하기 위해 적절한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과 교사들은 대부분 진정한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부모와 교사의 자각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 미정립으로 인해 자신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중 특히 부모들과 교사들이 서로 진정한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들 간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어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동반자로서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은 교사와 부모의 면담 내용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동반자 의식 부족, 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의 차이,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시선과 낮은 위상, 대중매체로부터 전파된 유아교육기관(교사)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 확산 및 신뢰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에 파트너십 관련 미완의 현 실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상호 간에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하는 존중받아야 할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들의 상호 공유된 인식의 필요성을 피력한 Keyser(2006)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이찬승, 허경철, 조난심, 이연선, 이승엽, 김태균(2013)의 서적에서 핀란드 내 한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교사(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은 그들의 제 1임무가 가정과 소통하고 가정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 중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부모(가정)와의 협력임을 시사하며, 한국사회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시하는 우리의 교육현장 문화와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유아교사 양성 기관 및 재교육기관에서는 가정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본질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아교육현장과 교사들이 부모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수업 내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 미정립과 관련하여 부모와 교사는 모두 파트너십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개념 정의로 인해 실제 수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Griffin과 Steen(2010)

이 설명한 파트너십 개념으로부터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사, 부모 모두에게 어떤 거창하고 눈에 떨만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며, 예를 들어, 가정과 교육기관이 교육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거나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터놓고 서로를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가정)-교사(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교육기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Epstein(2001, 2002, 2009)의 파트너십 구축에 필요한 6가지 부모참여의 유형도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는다. 첫째, 유-초, 초-중등의 전이과정에 놓인 가정에는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양육(parenting) 돕기, 둘째, 교육기관과 가정의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 구축하기, 셋째, 교사, 행정가, 학생, 또는 다른 부모를 돕는 다양한 자원봉사 업무, 간담회,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한 부모나 가족을 위한 공간 마련하기, 넷째, 가족들에게 자녀의 숙제 및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가정학습(learning at home) 지원하기, 다섯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교육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여섯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자녀의 학습 기술, 강점 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와의 협력(collaborating with community) 실행하기 등이 그것이다.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인증 평가의 한 범주로 다루어짐으로써 더욱 형식적일 위험이 크고, 실질적인 부모와 교육기관 간 관계는 기관주도적인 부모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은 물론 부모들도 파트너십 개념의 기본 원리인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을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파트너십 개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과 특수한 유아교육기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한 부모참여의 유형을 적절히 수행하여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파트너십 개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한편, 부모와 교사가 생각하는 이들 간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바람은 더 나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 의식의 형성, 부모-교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 개발, 다양한 부모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증진 방안 고려, 지역사회의 대학과 온라인을 통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의 활성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이었다. 이 중 부모-교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 개발의 경우, 무엇보다 이를 위한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스스로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활용 및 자기반성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의사소통기술 또는 대인 소통기술을 관리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관 차원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구체적인 부모교육 및 동료장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사교육의 장을 통해 구성원의 대인 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겠다. 특히, 교류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의사소통은 발화자가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신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이므로 상대방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구현정, 전영옥, 2005). 그러므로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이 함께 다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파트너십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부모)과 교육기관(교사) 간의 새로운 관계문화 형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증진시키는 방안의 경우,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

센터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일방향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활동 지원의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 다양한 가정-교육기관 연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 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탄탄하고 촘촘한 연결망이 구성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 파트너십 실천 방안의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선을 위해 서로 상부상조해 왔으며, 한국인들은 ‘정(情)’을 근간으로 한 관계 중심, 집단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최상진, 1997, 2011). 물론 ‘우리’의식이라는 개념을 남과 구분 짓는 배타성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으나, ‘우리’의식은 구성원 간의 관계와 사회적 단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식, 정(情)이라는 한국인 고유 정서를 토대로 한 따뜻한 생명체로서의 교육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한걸음 더 나아간 고민도 필요하다.

아이들은 대부분 일정 나이가 되면 가정을 떠나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에 다니게 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부모(가정)와 교사(교육기관)라는 양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게 된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교육정책의 현장성 부족, 전인(全人) 교육관과 학력(學歷)주의 교육관의 갈등, 교사의 역할 갈등과 소진 등을 거론하면서 교육기관의 위기가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김인희, 2002; 이찬승 외, 2013; 윤철경 외, 1999; 조난심 외, 2001; 주삼환, 2009), 특히 최근 들어 부모와 교사 간 갈등과 불신이 원인(遠因)으로 파악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깊은 반성 및 진정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때때로 우리는 미래 유아교육기관을 꿈꾸고 유아교육기관이 나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논의하며, 미래 유아교육현장이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 소통과 따뜻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장,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며 돌봄이 일어나는 현장,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관계 지향적 현장, 그리하여 유아와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교육현장을 바라고 희망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주요 교육 주체들이 행하는 상기와 같은 노력은 장차 우리 사회 초·중등학교의 비생명적인 모습과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이므로,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생명성이 보지(保持)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유아교사의 면담 자료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파트너십 실천 방안이나 적극적인 실천 사례를 살펴볼 것을 기대한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에서 다루어 온 ‘파트너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 및 연구 내용 등을 심층적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구현정, 전영옥 (2005). **의사소통의 기법**. 서울: 박이정.

- 김윤숙, 조희숙 (2011). 영아 초기적응 과정에서의 교사-영아, 교사-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1(6), 121-146.
- 김인희 (2002). **한국교육의 위기와 진로**. 서울: 문음사.
- 김현진, 송하나 (2012). 예비 영·유아교사의 학부모-교사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93-113.
- 김희연, 정선아, 오문자 (2005). 기록작업을 매개로 한 부모참여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며. **유아교육연구**, 25(6), 221-254.
- 김희진 (201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지원(개정판)**. 서울: 파란마음.
- 나석희, 이현진 (2012).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경험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6(1), 69-94.
- 노상경 (2012). 유아교사-어머니 간 의사소통 저해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3, 211-232.
- 류경희, 김순옥 (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관계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9(11), 193-208.
- 박향아, 제경숙 (2003). 유아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한일비교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2(3), 67-80.
- 박화윤 (2002). 유치원에서의 부모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1), 163-184.
- 배울미, 조유진 (2014). 유아교사의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연구: 의사소통 어려움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1), 323-340.
- 배인자, 위수경 (2004). 유치원에서 어머니-교사 의사소통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영유아교육연구**, 7, 25-47.
- 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및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1(3), 279-304.
- 서경혜 (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 서영희, 권미량, 김은주 (2006).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인식과 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6), 33-57.
- 손인숙, 송진숙 (2004). 부모와 교사 간의 연계교육 및 유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11-128.
- 손환희 (2009).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환희, 정계숙 (201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213-232.
- 안경식 (2007). 우리나라 학교공동체의 역사적 고찰. **교사교육연구**, 46(1), 1-14.
- 안지혜 (2012). 교사-부모 의사소통에서 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2), 21-46.
- 양병찬 (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충남 홍동 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우소연 (2003). 대안학교의 학부모 참여와 교육 주체의 형성 과정: 부천 <산어린이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기영 (199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 탐구**. 서울: 양서원.
- 윤철경 외 (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부미 (2010). 공동육아교사들의 협력적 실행연구 경험에 대한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4(3), 123-171.
- 이부미 (2011). 공동육아의 하루 일과에 대한 실천적 개념과 교육적 의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5(1), 5-39.
- 이수정, 심현기 (2009).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대학의 기능별 유형화 탐색 및 현황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4), 327-351.
- 이원영, 배소연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18-30.
- 이지훈 (2013). 유아교사와 부모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의사소통.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애 (2012). 어머니-교사의 의사소통 빈도와 의사소통 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찬승, 허경철, 조난심, 이연선, 이승엽, 김태균 (2013).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부설 21세기 교육연구소.
- 이효영, 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4), 41-57.
- 장희익 (2014).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경기: 한울아카데미.
- 정계숙 (2011). 유아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3), 143-164.
-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 (2015).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129-151.
- 정성수, 홍창남, 박상완, 이쌍철 (2010). **학교경영과 신뢰**. 서울: 원미사.
- 정숙녀 (1998). 간디학교 방문기- 숲속의 작은 학교. **홀리스틱교육연구**, 2(2), 177-182.
- 조난심 외 (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 조동섭 (2005). 교원양성대학의 기능과 역량 강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3(2), 399-419.
- 조용환, 서근원 (2004).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산들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7(1), 211-244.
- 조운경 (2011).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자녀 돌봄 재구성. **가족과 문화**, 23(1), 169-205.
- 주삼환 (2009). **위기의 한국교육**. 한국학술정보.
- 최강미 (2002). 유아교사의 부모관과 부모참여 활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숙, 박영미 (2004).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9(2), 137-160.
- 최상진 (1997). **한국인의 심리 특성**. 서울: 학문사.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서영 (2014).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형성의 어려움과 협력증진과정.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섭 (2014). 마을평생 교육공동체에서의 구성원들의 인문생태경험 연구: 풀무농업고등기술학

- 교 전공과의 사례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영윤 (2008). 공동육아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23, 77-101.
- 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 한승희 (2006). 평생학습사회의 학습체제 연구를 위한 생태체제적 개념모형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2(4), 179-202.
- 허학도 (2005).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2), 281-302.
- 홍정연 (2011). 보육시설에서 취업부모와 보육교사가 상호 지각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 A. C., & Swick, K. J. (2008). Dispositions toward families and family involvement: Supporting preservice teacher develop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6), 579-584.
- Berns, R. M. (2010).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8th ed.).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Berns, R. M. (2013). *Child, family, school, community: Socialization and support* (9th ed.).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Bryan, J., & Henry, L. (2012). A model for building school-family-community partnerships: Principles and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4), 408-420.
- Carol, R. K. (2002). A way of thinking about parent/teacher partnerships for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10(3), 177-191.
- Cox, D. D. (2005). Evidence-based interventions using home-school collaboratio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0(4), 473-497.
- Delgado-Gaitan, C. (2007). Fostering Latino parent involvement in the schools: Practices and partnerships. In S. J. Paik & H. J. Walberg (Eds.), *Narrowing the achievement gap: Strategies for educating Latino, Black, and Asian students* (pp. 17-32). New York: Springer.
- Delpit, L. (2006). *Other peoples' children: Cultural conflict in the classroom* (2nd ed.). New York: The New Press.
- Epstein, J. L. (1995). School, family, community partnerships: Caring for the children we share. *Phi Delta Kappan*, 76(9), 701-712.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CO: Westview Press.
- Epstein, J. L. (2002).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Your handbook for action*.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Epstein, J. L. (2009).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3rd ed.). Washington, DC: Corwin Press.
- Epstein, J. L., & Sanders, M. G. (2006). Prospects for change: Preparing educators for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81(2), 81-120.

- Epstein, J. L., & Sanders, M. G. (2012).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artnerships. In M. C.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New York: Psychology Press.
- Epstein, J. L., Sanders, M. G., Simon, B., Salina, C., Jansorn, N., & Van Voorhis, F. (2009).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Your handbook for action* (3rd ed.).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Epstein, J. L., & Sheldon, S. B. (2006). Moving forward: Ideas for research on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In C. F. Conrad & R. Serlin (Eds.), *SAGE handbook for research in education: Engaging ideas and enriching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itzgerald, D. (2004). *Parent partnership in the early years*. London: Routledge.
- Griffin, D., & Steen, S. (2010). School-family-community partnerships: Applying Epstein's theory of the six types of involvement to school counselor practi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3*(4), 218-226.
- Hedges, H., & Lee, D. (2010). 'I understood the complexity within diversity' : Preparation for partnership with familie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8*(4), 257-272.
- Johnson, M. (2012). *The 21 century parent: Multicultural parent engagement leadership strategies handbook*. Charlotte, NC: IAP.
- Keyser, J. (2006). *From parents to partners: Building a family-centered early childhood program*. St. Paul, MN: Redleaf Press.
- Lopez, G. R., Scribner, J. D., & Mahitivanichcha, K. (2001). Redefining parental involvement: Lessons from high-performing migrant-impacte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2), 253-288.
- Margaret, M. F., & Peter, J. F. (2005). Parents as partner: Raising awareness as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The Clearing House, 79*(2), 77-82.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ichael, M. P. (2011). Examining pre-service teacher knowledge and competencies in establishing family-school partnerships. *The School Community Journal, 21*(2), 143-160.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outo-Manning, M., & Swick, K. (2006). Teachers' beliefs about parent and family involvement: Rethinking our family involvement paradig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4*(2), 187-193.
- Susan, R. W., James, T. N., DeLacy, D. G., & Anita, P. Q. (2011). Preparing urban teachers to partner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School Community Journal, 21*(1), 95-112.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criticism against life contempt tendency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and expectation about the realities and formations of partnership between the hom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of parents and teachers. The ultimate aim is to build a foundation which transforms educational settings into warm educational communitie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4 mothers whose children attended the setting and 4 teacher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8 participants in total).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erception of the realities about partnership of parents and teachers was sub-categorized into four categories: 1)“partnership”: essential aspect in children’s positive development, 2) practicing with vague concepts, 3) lacking the awareness of companion or partnership, 4) disturbing cooper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from external issues and problems. The expectation of parents and teachers about formation of partnership between hom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was sub-categorized into five categories: 1) build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for better partnership, 2) developi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for mutual understanding, 3) considering various strategies to promote partnership with different styles of parents, 4) activating teacher training and parent education in link with local universities and on-line, 5) providing support from the national level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between home and educational settings. Consequently, it will lead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to be transformed into warm educational communities which orientate respect for life.

▶*Key words* : *parents(home), teachers(educational settings), partnership, educational community*

논문투고 2015. 04. 15.
수정원고접수 2015. 05. 26.
최종게재결정 2015. 06. 09.